

한우의 경우 지속적인 개량사업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은 물론 브랜드화, 생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와 우리나라 축산업 중 차별화에 가장 성공한 축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질적 양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 뿐!



원 유 석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장

요즘 축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FTA” 일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함께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협상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점점 우리 양축농가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슬기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가졌었지요?

'90년대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시장 개방 일정이 잡혀지면서 우리 모두가 “아! 이제는 우리나라 축산도 정말 어렵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지요.

지금 우리 축산업은 그때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축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에도 개량의 출발이 되는 산유능력검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이제 두당 산유량이 세계 5위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한우의 경우 지속적인 개량사업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은 물론 브랜드화, 생산이력제 및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와 우리나라 축산업 중 차별화에 가장 성공한 축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에도 개량의 출발이 되는 산유능력검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이제 두당 산유량이 세계 5위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즉 자신감이지요?

궁극적으로 무관세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는 FTA는 축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양축농가 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질적 양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료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축농가들에게는 ‘사료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과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 를 달성하기 위한 ‘가축개량’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개량사업의 내용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한우 암소개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개량단지사업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등록 암소에 대하여 발육이나 육질 등의 경제형질에 대한 개체별 육종가가 산출되지 못하고 아직



‘선발’과 ‘교배’라는 전통적인 개량방법과 함께 수정란이식, 초음파정보의 이용, 유전자 확인 등 개량과 관련된 첨단 육종기법들을 도입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혈통과 외모에 의한 선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씨수소의 선발에 있어서도 한우의 질적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육질에 대한 선발강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이제는 씨수소 선발기간(세대간격)의 단축을 통한 연간 개량량의 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들을 개량기관 종사자 모두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고민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젖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간 두당 산유량이 증가되는 만큼 개량의 초점이 되는 ‘유전적개량량’은 어느 정도 증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세계 5위 수준의 산유능력을 가진 젖소를 보유한 낙농국에 걸맞는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갖추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관세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축산물수출국들의 압력은, 다행히 이번 FTA 협상에서 비껴간다고 할지라도 제2, 제3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며, 수출국으로써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축산자원의 유전능력 개량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개량기관이 각 기관별 이해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여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발’과 ‘교배’라는 전통적인 개량방법과 함께 수정란이식, 초음파정보의 이용, 유전자 확인 등 개량과 관련된 첨단 육종기법들을 도입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있잖아요?